

평생 치아건강은 어린이 치아건강으로부터

- ◇ 충치는 치아가 입안에 나온 후 2-3년 내에 가장 많이 발생
→ 젖니는 만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, 영구치는 만 6세부터 8세 사이에 가장 취약
- ◇ 일단 충치가 생기면, 그 치아는 평생에 걸쳐 점점 손상됨.
→ 충전은 치아손상의 속도를 늦추는 치료일 뿐이며, 수명이 다하면 재충전을 요하고 이때 더 넓은 부위의 충전을 필요로 함.
- ◇ 충치는 올바른 치아관리로 예방될 수 있음.

치아 건강을 해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상 충치라고 부르는 치아우식증이다. 우리 몸의 경조직 중 뼈와 달리 치아는 생물학적 회복능력이 없어서, 한번 손상될 경우 그 흔적이 평생에 걸쳐서 남게 된다.

치아우식증이 진행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아가 손상되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

기 위해서 아말감이나 금 또는 합성수지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손상 부위를 메워주어야 하는데 이를 충전이라고 부른다.

입안은 1년 365일 동안 습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, 뜨거운 음식과 찬 음식 등으로 인한 온도변화가

男

수명 : 74歲
치아의 수명 : 61歲

女

수명 : 79歲
치아의 수명 : 58歲

영구치의 갯수는 28~32개 입니다. 보통 32개인데 제일 안쪽에있는 사랑니(제3대구치)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숫자가 변합니다. 즉, 사랑니가 하나도 안난 사람은 28개가 됩니다. 그리고 유치는 뒷어금니와 사랑니가 안나기 때문에 모두 20개입니다.

심하며, 침 속에 들어있는 전해질 성분이 충전재료를 전기적으로 삭제 만드는 등 충전재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좋은 조건이 조성되어 있다.

즉, 한번 충전된 부위는 재료의 수명이 다함에 따라 언젠가는 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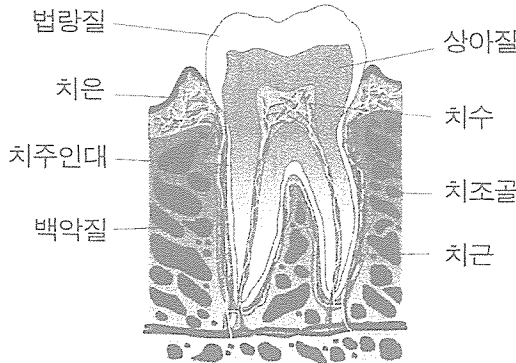
매일 섭취함에 따라 치아우식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자라기 좋은 영양분이 계속 공급되게 되고, 충전물 주변에 치아우식증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.

일단 치아우식증이 재발하면, 치아 손상 부위는 초기보다 훨씬 넓

충전되어야 한다.

충전 재료의 수명이 다함에 따라 다시 충전을 할 때에는 처음에 충전했을 때보다 더 넓은 부위를 충전하게 되고, 이에 따라 치아는 평생에 걸쳐 조금씩 조금씩 계속 손상되어 간다.

아울러, 설당이 들어 있는 음식은



• 치아와 치아주위 조직의 구조 •

어지게 된다. 충전은 치아우식증을 완전히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, 치아우식증에 의한 치아 손상의 속도를 늦추는 치료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.

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, 성인 내지는 노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느냐 또는 틀니를 사용하느냐 하는 기로는 어린이 시절부터 결정된다.

어린이 시기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은 장래에 틀니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첫걸음이다.

치아우식증은 치아가 처음 입안에 나온 후 2~3년 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. 왜냐하면, 처음 입안에 나온 상태의 치아 표면은 비교적 무른 상태로서, 입안에서 2~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점차 단단해지기 때문이다. 치아가 입안에 나오는 시기를 감안할 때, 젖니는 만 12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가장 썩

평생에 걸쳐서 사용하여야 하는 영구치는 소중히 관리해야 한다.

또한, 신체발육에 필요한

영양소를 잘 씹어서

섭취할 수 있도록

치아우식증 예방 및

조기 치료에 관심을

기울여야 하며,

치아우식증은 물론이고

청소년기부터

노년기까지 발생하게 될

치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

입안을 깨끗하게 하고

습관화하는 시기가

어린이 시기이므로

어린이 치아건강관리는

매우 중요하다.

기 쉽고, 평생을 사용하는 영구치는 만 6세부터 만 8세 사이에 가장 취약하다.

평생에 걸쳐서 사용하여야 하는 영구치는 입안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소중히 관리하여야 한다. 또한, 비록 영구치로 교체될 것이라도 해도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통증을 겪지 않고, 신체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를 잘 씹어서 섭취할 수 있도록 치아우식증 예방 및 조기 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.

특히, 치아우식증은 물론이고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발생하게 될 치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입안을 깨끗하게 관리할 기술을 익히고 습관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습관이 길러지는 시기가 어린이 시기이므로 어린이 치아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하다. 